‘블랙아웃’ 위기… 광주·전남 산업계 절전 ‘총력전’

기아차·금호·삼성 등 자가발전기 가동
대규모 사업장 82% 절전 이행률 보여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난이 예고된 12일 광주·전남지역 산업계가 일제히 절전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기업에 절전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블랙아웃’(전력공급중단)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전력 사용규제 방침에 동참했다.

지난 5일부터 총 3대의 자가발전기를 전력가동중인 기아차 광주공장은 전력소요량의 5%를 자가발전기로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전 부서로 공문을 발송, 피크 시간대 에어컨 가동 중지를 독려하고 있으며 업무시간 외 사무실 조명과 PC 전원 OFF 점검, 사무실, 식당, 복지시설 등 생산라인 외 간접시설의 불필요 전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주 5%에 그쳤던 전력 감축량을 이날 오전 44%까지 늘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의 자가 발전기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1일 5~9시간 동안 자가 발전기 가동과 함께 냉방설비의 탄력 운영 및 조명 소등 등 현실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실시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블랙아웃’ 위기가 계속되면 최대 3주간 자가 발전기로 전력 수요의 일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절전 캠페인 ‘3S’(스마트 서머 세이브) 운동을 통해 생산라인은 기존 전력량의 5%, 사무실은 10%, 임직원 가정은 15%를 절감하고 있다. 28도에 맞춰진 조립라인은 설비 때문에 체감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지만 ‘쿨조끼’와 냉수로 열을 식혀가며 전력 수요량을 줄이는 중이다.

여수국가산단의 LG화학은 이날 VCM공장 가동을 아예 멈추고 정비에 들어갔다. 절전 지정제도 참여를 통해 설비보수 시간을 갖는 것. 각 공장도 생산량을 감축을 통해 절전 중이다. 자체 열병합 발전소는 평상시 60~70% 가동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7~8월 들어 95%로 높였다. GS칼텍스도 비상발전기 3대 중 1대를 24시간 가동체제에 돌입했다. 시간 조절을 통해 피크 시간대는 피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력 5000㎾ 이상을 한전과 계약한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산업체들은 오전과 오후 최대 피크시간 대 3~15%의 전력을 강제로 줄여 정부의 절전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부 절전규제를 이행해야하는 광주·전남지역 대규모 전기사업장은 병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161곳으로 이들은 12일 81.98%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도 12일 회원사들에 긴급 절전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피크타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한 냉방기 가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소등하는 한편 미가동·대기상태의 설비전원을 차단하거나 공회전을 방지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도 산업계가 정부의 절전규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전력피크 시간대 예비전력 확충을 위해 조업조정 및 자가 발전기 가동 등을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동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송변전사업실 급전소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환단전’ 막아라… 전력당국 초긴장

한전 광주전남본부 전직원 정상업무 멈추고
땡볕속 시내중심가·다중시설 돌며 절전활동

월요일부터 찾아온 최악의 전력 수급난을 막기 위해 전력당국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12일 전력거래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순환단전’까지 가지 않도록 예비전력 확보에 안간힘을 썼고,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정상업무를 멈추고 전 직원을 절전활동에 내보냈다.

전날 밤 당진복합화력발전소 3호기(발전용량 50만㎾)에 이어 이날 오전 서천화력발전소 2호기(20만㎾급)마저 가동을 멈추면서 다른 발전기가 단 하나라도 가동을 멈추면 예비력이 바닥을 드러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한전은 이날 오전부터 본사와 각 지사, 산하 6개 발전사 등 관계사와 협력사의 냉방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5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상황실 근무자 20여 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동원해 전력난 극복에 온 하루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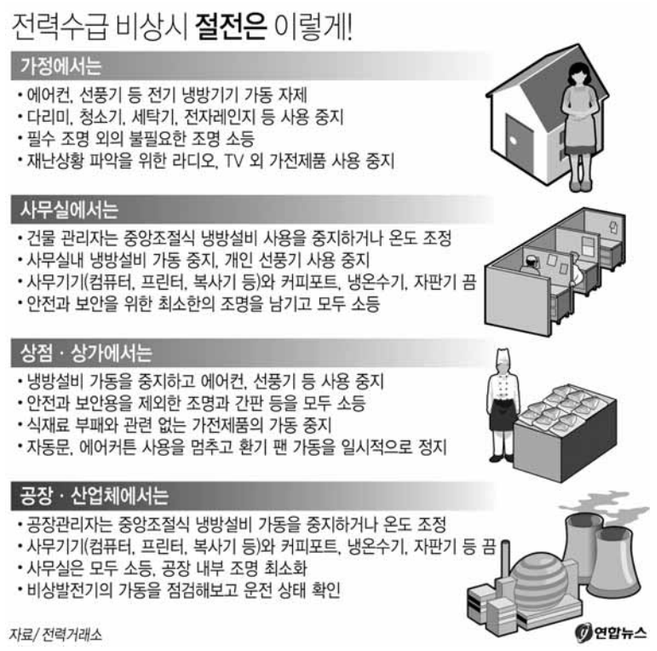
한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1000㎾~2999㎾의 전력을 사용하는 호수는 990호. 직원들은 전화로 절전을 유도하고 591개 고객사는 직접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 전기 사용을 아껴줄 것을 설득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모니터를 줄곧 지켜보며 전력사용이 늘 때마다 수화기를 들었다. 나머지 직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시내 중심가와 다중시설을 방문, 절전을 호소하고, 냉방기와 조명 가동 여부 상황을 점검했다. 또 지인에게 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 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오전 10시57분 예비 전력이 500만㎾ 밑으로 20분 동안 떨어지면서 수급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됐지만 기업과 가정 등에서 절전에 동참하면서 이후 더 이상 비상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여성구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휴가에 들어갔던 공장이 이번 주 재가동하고, 무더위는 심해져 전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인 국민 동참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피크 시간대 사용량이 줄어들었다”며 “15일부터는 전력수급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범국가적인 전력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순환단전=예비 전력이 100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경보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강제 단전조치. 2011년 9·15 대정전이 대표적인 순환단전으로, 당시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순환단전은 ▲1순위 주택·아파트·일반상가 ▲2순위 다중이용시설 공급선로·산업용 일반·산업용 공단 ▲3순위 농어업·축산업·정전민감고객(양식장 등)·대규모 산업용(66㎸ 이상) 순으로 차단 순위가 정해진다.

민원인도 직원들도 “더워죽겠다” 아우성

공공기관 냉방금지·소등

냉방기 가동 금지 등 공공기관 긴급절전 조치가 내려진 12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시청 등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사무실 전등이 하나, 둘씩 소등되기 시작했다. 복도등마저 모두 꺼지면서 대낮인데도 건물 내부는 마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빈 건물로 착각할 정도였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만 선명할 뿐 주변은 어두웠다.

승강기 사용도 최소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날 하루종일 민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참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지난달부터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5시~6시 20분까지 하던 ‘찔끔냉방’(평균 28도)도 이날은 중단됐다.

특히 광주시청의 사무실 대부분은 남향에 위치한 탓에 오후에 접어들자 일부 사무실에서는 한때 실내 온도가 38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나마 의지해 오던 선풍기마저 틀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공무원은 짜증이 나는 듯 연신 부채만 흔들어 댔다. 오후 3시가 넘어서자 견디기 힘든 한계에 다다른 듯 일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매년 전력난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대지진으로 전력난이 왔을때도 사무실의 냉방기 가동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은 돼야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불만도 쏟아졌다.

이날 광주시청을 찾은 민원인 안민기(41)씨는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다. 이런 여건에서 시민을 위한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민원때문에 관련 부서를 방문했다가 사무실도 어둡고(소등) 직원들의 분위기도 심각해 보여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수급현황이 경계단계인 200만㎾로 진입할 경우 공공시설 근무자는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1면 ‘전력난’서 계속

◇전력 위기 여전, 정부 총력전=정부는 연일 땡볕 더위가 지속하면서 전력수급 위기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발전기의 출력을 최대로 올린 탓에 공급능력을 확대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결국 수요 감축이 ‘블랙아웃(대정전)’을 막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만약에 발전기 한 곳이라도 불시에 가동을 멈출 경우 지난 2011년 큰 혼란을 불러온 ‘9·15 전력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하고 실내조명 소등, 승강기 사용 최소화, 사무기기 및 냉온수기·자판기 전원 차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체 조업 조정 및 민간 자가발전 등 기존 비상수급대책 외에 중앙전력관제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열병합발전소까지 전력 계통에 병입하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14일까지 사흘만 잘 넘기면 광복절인 15일부터는 전력수급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더위에 불편하더라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절전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2학기
國家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3. 9. 2.(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1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1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❶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❷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교육사업에
동참하실 분 찾습니다.
주)쓰리엘은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을 바꿔나갈 활력있고 능력있는 사원을 모십니다.
팀장 00명
강사 0명
교육사업에 열정 있으신 분
■ 교육 콘텐츠 사업

유치부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생각하는 논술 영어회화, 영문법, 중국어, 씨홍스
초등부	영재수학(9권), 논술(초·중·고급) 영어회화, 영문법, 사회
중등부	1,2,3 영문법, 영어회화 논술고급, 사회
고등부	고1, 이과문과, 국어(1,2,3)

wawapen
태블릿PC
주)교육사업 쓰리엘 광주지사
062)234-5356 / 010-9535-5333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